

# 「蒸室記」研究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상영 · 권오민 · 안상영 · 한창현 · 오준호\*

## A Study on 「Records on Steam Room(蒸室記)」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ark Sang-young · Kwon Oh-min · Ahn Sang-young · Han Chang-hyun · Oh Jun-ho \*

The Chapter of 「Records on Steam Room(蒸室記)」 in 『*Shandangjip*(山堂集)』 by CHOI Chung-sung is a rare and notable one in that it contains the first concrete and detailed description and view of steam showe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t is known that Choi's Wind stroke(brain stroke) deteriorated due to excessive steam shower. He unreasonably entered the steam room 4 or 5 times a day for 9 consecutive days even though external pathogens had intruded into visceral organs and his energizing chi got less and weaker.

By this excessive steam showering, his righteous chi was exhausted and eventually burned out. Given some record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riting that people died due to excessive steam shower, there was no established medical theory on the effect of steam shower before the publication of 『*Donguibogam*(東醫寶鑑)』.

**Key words :** steam room, steam shower, stroke, treatment by perspiration

## I. 서론

汗蒸浴은 공식적인 기록이 조선전기부터 전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증욕은 한국 전통의 문화로 외국인들에게는 특이한 사례였다. 일제강점기 今村 軀(1870~1943)은 『朝鮮漫談』에 한증의 풍속과 증실 구조를 이야기로 남기기도 하였다.<sup>1)</sup> 오늘날에도 한증욕은 찜질방 등으로 분화되어 외국인들에게 이국적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이런 유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한증욕에 관해서는 三木榮의 『朝鮮醫學史』<sup>2)</sup>와 김두중의 『韓國醫學史』<sup>3)</sup>에서의 짤막한 記述 이후 별다른 연구의 진전이 없었다. 이는 이상의 두 책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山堂 崔忠成(1458~1491)의 「蒸室記」<sup>4)</sup>는 조선전기 증실의 구체적 구조가 어떠하였으며, 또 증실을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증풍을 앓다가 34세의 짧은

\* 교신저자 : 오준호,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E-Mail : junho@kiom.re.kr Tel : 042)868-9317

접수일(2011년 9월 01일), 수정일(2011년 9월 01일),

게재확정일(2011년 9월 23일)

1) 이에 관하여는 다음 서적에 인용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思文閣出版. 1991. p. 142.

2) 三木榮. 앞의 책. pp. 141~142.

3) 金斗鐘.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p. 244~247.

4) 崔忠成. 山堂集 卷2. 蒸室記. 韓國文集叢刊 16. 민족문화추진회. pp. 593~594.

생을 살다 간 山堂 崔忠成이 남긴 「蒸室記」라는 작품을 번역·소개하고 그 한의학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본 론

### 1. 山堂 崔忠成(1458~1491)에 관하여

諸崔忠成의 祖父 烟村 崔德之(1384~1455)는 醉琴 朴彭年(1417~1456)이나 梅竹 成三問(1418~1456) 등과 교유할 정도로 당대 빼어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조부와 형제인 崔匡之·崔直之 등 삼형제 모두 문과에 합격하여 集賢殿 提學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사람들이 ‘提學崔氏之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崔忠成은 이러한 명문집안에서 출생한 것이다.<sup>5)</sup> 그는 집에 거하기보다 山堂에서 책읽기를 좋아하여 山堂書客이라고 스스로를 일컬었고 이것이 곧 그의 호가 되었다.<sup>6)</sup> 「蒸室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전국을 유람하다시피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32세에 돌연 중풍을 앓게 되었고, 그 병으로 인해 2년 후에 세상을 뜨고 만다. 유고로 『山堂集』 5권(韓國文集叢刊 16)이 전한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蒸室記」도 『山堂集』 권2에 전한다. 그의 짧은 생애에 관하여는 이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山堂集』 해제를 하면서 연표로 제시한 바 있다. 소개하면 본고 끝의 <표1>과 같다.

### 2. 「蒸室記」<sup>7)</sup> 번역

① 病焉而醫者, 情也; 醫之而痊者, 理也. 既病而不治, 治之而不勤者, 以父母之遺體, 棄之道路者乎! 治之雖勤, 而反添違瘳者, 其又不幸乎! 誰當其責? 今余是已.

병이 들었으면 치료하는 것은 인지사정[情]이요, 치료하면 낫는 것은 당연한 이치[理]이다. 이미 병이 들었는데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는 하되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몸을 길에다가 함부로 버리는 짓이리라! 치료를 열심히 했으나 도리어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가? 지금 내가 바로 이런 경우라 하겠다.

② 余自桑弧之初, 志於四方. 年未一紀, 從兄而北學於長安, 結友二三子, 讀書于學宮, 而文房瀟灑, 書齋凜冽, 罽風隙冷, 浸入肌膚.

내가 처음 남아로서의 포부를 지녔을 때부터 나는 사방을 유람하는 데에 뜻을 두었다. 내 나이 12살도 안 되었을 때 형님을 따라 북쪽으로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가서 두세 명의 벗을 사귀며 학교에서 글공부를 하였는데, 공부방은 시원하고 서재는 냉골이었으며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과 냉기가 피부와 뺨속까지 스며들었다.

③ 既及長也, 讀聖賢之書, 解諸子百家之傳, 知古人志大量遠, 雖拳土塊石, 無不欲觀以畜其有, 慨然欲效之. 癸卯而月出, 甲辰而湧巖, 乙巳而漢都之三角·白嶽, 松都之天磨·聖居, 丙午而瑞石, 丁未而頭流, 尋師從友. 負笈橫行, 旅況殊惡, 山氣高爽, 觸霧犯風而寒濕積聚.

장성한 후에는 성현의 글을 읽고 제자백가를 공부하면서 옛사람의 지향과 국량이 원대함을 알게 되어 비록 한 줌의 흙과 작은 돌멩이도 하더라도 관찰하여 나의 내면을 축적하고 발분하여 그것을 본받고자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계묘년(1483, 성종 14)에 월출산, 갑진년(1484, 성종 15)에 용암산, 을사년(1485, 성종 16)에 서울의 삼각산과 백악산 그리고 송도의 천마산과 성거산, 병오년(1486, 성종 17)에 서석산(무등산), 정미년(1487, 성종 18)에 두류산(지리산)을 유람하며 스승을 찾아뵈고 벗들과 종유(從遊)하였다. 책짐을 메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그네 처지가 심히 열악하고 산 기운이 몹시 싸늘한데 안개에 젖고 바람을 범하다보니 한습(寒濕)이 몸에 쌓이게 되었다.

④ 戊申春, 又在方丈. 晚聞金先生大猷丁憂, 義當匍匐, 忙劇之至, 未遑取馬, 徒步往哭於嶺南. 歸來, 足已繭而氣已燮矣. 其年亦復, 鶯月而完山, 季夏而玉川, 孟秋而雪山, 強從諸生, 隨行逐隊. 仲秋而昌平監試, 菊秋而金堤文場. 自春暨秋, 橫行東西, 占席驢背, 卜鼎道傍, 暫無休暇. 氣因困乏, 形容枯槁, 顏色黎黑, 不知自止休養氣息.

5) 崔忠成. 앞의 책. 권4. 附錄. 家狀[崔鍾翼]. p. 611.

6) 崔忠成. 앞의 책. 권2. 山堂書客傳. p. 599.

7) 단락 구분은 내용에 따라 임의로 하였으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단락 번호를 부기하였다.

무신년(1488, 성종 19) 봄에 또 방장산(지리산)을 유람하였는데, 저녁 때 김대유(金大猷)<sup>8)</sup> 선생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리상 마땅히 서둘러 조문을 가야했는지라 심히 황급하여 미처 말을 구하지 못하고 영남까지 걸어가서 조문을 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니 발은 이미 부르르고 기력은 이미 소진되었다. 그해에 또 회복이 되자 늦봄[鶯月]에 완산, 6월에는 옥천, 7월에는 설악산을 유람하였는데, 억지로 여러 유생들을 따라 무리 지어 다녔다. 8월에는 창평에 감시(監試)를 보러 갔고 9월에는 김제의 과장(科場)에 다녀왔다. 이 해 봄부터 가을까지 동문서주하느라 나귀 등에서 잠들고 길에서 밥을 해먹으며 잠시도 쉬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력은 더 떨어지고 몸은 야위어 갔으며 안색은 검게 변했는데도 유람을 자제하고 쉬면서 기력을 보양할 줄을 몰랐다.

⑤ 反以井蛙之見, 妄意蟾宮之桂, 與友生金子虛 · 兪翼之, 鍊業于月出山精廬. 慎富仁 · 李可售 · 成放翁, 自光山繼至, 姪子義叔携李伯元自鳳城最後而至. 諸友咸集, 志穿鐵硯. 然猶未警司馬之枕, 或不免孫康之睡. 余以爲於涼處處之, 志氣爽塏則心自惺惺, 而可以避睡鄉也. 常自占冷座, 而蚤暮起居, 呼風逼寒, 氣又不調. 素積之風, 忽爾乘隙. 始焉咳嗽, 中焉喘急, 反覆相因, 終焉中風. 四肢不仁, 五關閉塞, 魄遁神返, 與人世不相關, 幾五六日. 幸賴吾兄奔救之力而得蘇, 復見天地日月, 則如萬物既冬而復春, 兩曜既晦而復明矣.

도리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식견을 가지고 망령되이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세우고는, 친구 김자허(金子虛) · 유익지(兪翼之) 등과 함께 월출산의 정사에서 학업을 닦았다. 신부인(慎富仁) · 이가수(李可售) · 성방옹(成放翁)이 광산(光山)으로부터 연이어 왔고, 조카 의숙(義叔)이 이백원(李伯元)을 데리고 봉성(鳳城)에서 마지막으로 합류하였다. 여러 벗들이 모두 모여 첩로된 버루를 뚫을 기세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마(司馬)의 베개를 경계로 삼지 못했으며<sup>9)</sup> 가끔은 손강(孫康)의 졸음<sup>10)</sup>을

8) 김대유(金大猷) : 김광필(金宏弼, 1454~1504)을 가리킨다. 대유는 그의 자이다. 최충성은 바로 김광필의 문인이다.

9) 사마의 …… 못했으며 : 사마는 북송의 정치가인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킨다. 사마광은 옛날부터 너무 깊이 잠이 드는

면치 못하였다. 나는 서늘한 곳에 거처하여 지기(志氣)가 상쾌해지면, 마음이 절로 깨어 있어서 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항상 스스로 찬 자리를 차지하고는 아침저녁으로 거처하며 바람을 마시고 한기에 노출되니 기가 또 고르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평소에 쌓은 풍기(風氣)가 갑자기 몸이 약해진 틈을 타고 나타났다. 처음에는 기침이 나더니 중간에는 숨이 가빠지게 되었고 이런 상태가 연이어 반복되더니 끝내 풍을 맞고 말았다. 그리하여 사지에 마비가 오고 오관(五關)<sup>11)</sup>이 막혀서 정신이 나가 혼절하기 거의 인간세상과 이별한 듯이 5~6일을 지냈다. 다행히도 우리 형님께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방도를 찾아 주신 데에 힘입어 소생하여 이 세상의 천지와 일월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와서 만물이 소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가 다시 광명을 찾은 것과 같았다.

⑥ 鳥飛兔走, 奄至于春, 語漸期期, 視漸眊眊. 步雖萍梗, 而倚杖則可行, 不啻涸鱗得西江之決, 而圍圉爲洋洋焉, 悠然而逝. 吾兄又以爲荒村獨廬, 醫疏藥乏, 治療無計, 請軍于路官, 擔輻載疾. 得與兄弟敍盡心懷, 則恍若出自覆盆之下, 而觀青天白日之光矣. 涉遠歷險, 身尙康勝, 亦足爲喜. 而所可恨者, 如飛鳥折右翼矣.

어느덧 한해가 지나고 새봄이 불연 듯이 찾아오니 차츰차츰 말을 더듬거릴 수 있게 되었고 차츰차츰 눈으로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다. 걸음걸이가 가시 발길을 뚫듯 편치 않았으나 지팡이를 짚으면 그래도 걸을 수 있었으니, 마치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살던 물고기가 팔팔 흐르는 서강(西江)을 만나서 처음에는 비실비실하다가 유연히 헤엄쳐 가는 것과

것을 막기 위해서 '경침(警枕)'이라는 베개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나무로 원형의 베개를 만들어 너무 굳히 잠이 들면 베개가 머리에서 빠져나가 잠이 깨도록 한 것이다. 사마광이 이 경침을 사용해 가면서 독서를 했다고 한다. 范太史集. 卷36. 司馬溫公布衾銘記.

10) 손강의 졸음 : 잠과 관련된 손강의 고사는 찾지 못했다. 여기서는 공부하는 데에 잠을 참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다만 진(晉)나라 손강(孫康)이 가난하여 겨울밤이면 눈빛에 비추어 책을 읽었다는 고사가 있다. 蒙求. 孫康映雪.

11) 오관(五關) : 이(耳), 목(目), 구(口), 비(鼻), 신(身)을 가리킨다.

같았다. 우리 형님은 또 궁벽한 시골이라 똑똑한 의원도 없고 좋은 약도 부족하여 치료할 길이 없다 생각하셔서 \*노관(路官, 未詳)에게 군사들을 가마꾼으로 빌려 달라 부탁해서 가마에 나를 태우고 길을 나섰다. 형제가 함께 마을 속 회포를 풀어버리게 되니 마치 열어놓은 그릇속에 있다가 푸른 하늘과 빛나는 햇빛을 보는 것 같았다. 멀고 험한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몸도 조금 건강해져서 기분도 좋아졌다. 그러나 안타가운 것은 내 처지가 마치 나는 새의 오른쪽 날개가 꺾어진 것과 같다는 점이었다.

⑦ 千方萬藥, 靡有餘力. 人言汗蒸, 則可以立效, 余以爲信然. 於是, 構蒸室二間, 一爲休憩之所, 而一爲燠室. 厚塗四壁, 俾無容錐之隙, 壘石作突, 而以沙石填罅, 可容坐三四人矣. 燃薪許多, 令極熱而塞竈口, 俾不泄氣. 積菖蒲·蒼耳·桔梗·生艾于突上而傾注盆水, 乃投身入處其中則氣蒸於上, 如煙如霧, 凝結爲露, 兼之以汗流如漿如雨而注於頤下, 如卒然暴雨, 而傾屋霪之水矣. 焰氣外熾, 而呼吸喘息尙不能自擅, 必須以幌巾掩口, 而後可以通吾氣也. 與余共耐其苦者數人, 而強者了一飯之頃, 弱者行百步之間, 甚者雖須臾之刻, 尙不能堪忍也.

온갖 처방과 약을 써도 효력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한증(汗蒸)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믿을 만한 말이라 여겼다. 이에 증실(蒸室) 두 칸을 지어서 한 칸은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하고 한 칸은 옥실(燠室, 몹시 더운 방)로 만들었다. 사방 벽을 두텁게 발라서 송곳도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틈을 막아버리고, 돌을 쌓아 온돌을 만들고 사석(沙石)으로 틈을 메우니, 죽히 서너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땀나무를 무수히 집어넣고 불을 집혀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부뚜막을 막아 열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온돌 위에 창포(菖蒲)·창이(蒼耳)·길경(桔梗)·생애(生艾, 생쑥)를 쌓아놓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뿌리고는, 발가벗고 방안에 들어가 앉으니 위는 열기가 폭폭 쪼서 마치 안개나 연기마냥 이슬로 맺혔다. 또 땀이 비가 오듯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마치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처마로 내리치는 빗물과 같았다. 밖에서 불을 더욱 뜨겁게 때니 호흡과 기침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반드시 수건으로 입을 덮은 다음에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나와 함께 들어가 이러한 고통을 견디는 자가 서너 명이었는데, 건강한 사람은 한식경 정도 견디었고 약한 사람은 백보를 가는 정도의 시간 밖에 견디지 못하였으며, 심한 사람은 잠시도 견디지 못하였다.

⑧ 余以爲忍苦無據則尤難, 以心念原道一篇爲期. 將庶幾畢念也, 心熱腸爛, 卽促念了則出. 用以鹽湯浴洗, 而重綿挾纊, 漱口歡粥. 良久休歇, 而又還入焉. 如是者日四五度矣, 連九日困於炎蒸之中.

나는 고통을 참는 데 기댈 것이 없으면 더욱 어렵다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한유의 「원도(原道)」 한 편을 일 때까지 견디겠다고 다짐하였다. 거의 다 외었는데 심장이 뜨겁고 장이 타들어가는 듯하여 서둘러 외우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끓인 소금물로 몸을 씻은 다음 두꺼운 면에 숨을 넣은 옷을 입고 입을 행구고는 죽을 먹은 뒤, 한참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증실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하기를 하루에 4~5차례 하였으며, 9일 연속 뜨거운 증실 속에서 고통을 견디었다.

⑨ 自茲以來, 瘳日益沈痼, 氣日益失和, 將以愈疾, 而適以資夫疾之尤甚, 眞所謂非徒無益, 而又害之者也. 余嘗觀醫書, 吐·汗·下三法, 所以該盡天下治病之源也. 夫蒸所以汗者也, 汗而可療者, 卒然傷風寒, 冷客於皮膚之間, 而未之深入者, 非若吾病之謂也.

이 이후로 병세는 날로 더욱 심해지고 기운은 날로 더욱 조화를 잃게 되었으니, 장차 질병을 치료하려다 오히려 질병을 더욱 심해지게 할 판이었다. 나는 일찍이 의서(醫書)를 보니, 토(吐)·한(汗)·하(下), 이 세 가지 방법은 천하에서 병을 치료하는 근원을 모두 극진히 하는 것이라 하였다. 무릇 증(蒸)은 땀을 내게 하는 것[汗]인데, 땀을 내어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갑자기 풍한(風寒) 상하여 냉기가 피부 사이에 들었으나 아직 깊은 곳까지 들지 않은 자에게 유효한 것이지, 나와 같이 병에 걸린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⑩ 嗚呼! 醫不三世, 不服其藥; 康子饋藥, 孔子不敢嘗, 古人之所以謹疾者如是. 而今我始既不能戒慎, 而馴致此疾. 傍有伯兄, 款曲而手救之, 遠有仲兄, 慇懃而命藥之, 諸父諸兄, 莫不賜念, 而今又輕信樵童野夫之言, 自招其舊疾之復焉. 非徒見責於吾兄, 抑亦前修之一罪人也. 噬臍莫及. 書以爲記, 聊以爲後人如我者之戒云.

아! 삼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지 않은 의원에게서는 그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sup>12)</sup>, 계강자(季康子)가 약을 보냈어도 공자께서는 감히 드시지 않았으니<sup>13)</sup>, 옛사람이 병을 치료함에 조심한 것이 이러하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당초에 이미 몸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굴러서 이런 병에 걸렸다. 그래도 곁에 큰 형님이 계시어 정성을 다해 손수 방도를 구해 오시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멀리 사시는 둘째 형님께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며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 하셨으며, 집안의 여러 어른들과 형님들이 신경 써 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초동야부(樵童野夫)의 말을 경솔하게 믿었다가 옛 병을 다시 스스로 불러들이고 말았다. 이는 우리 형님에게 책망을 당할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옛 현인들에게 죄를 지은 꼴이다.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이에 내막을 기록하여 후대의 나와 같은 자에게 경계로 삼게 하고자 한다.

### Ⅲ. 고찰

#### 1. 中風의 한의학적 평가 기준

“中風”이란 風邪가 인체에 적중된다는 의미이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중풍은 최초로 外邪가 인체에 침입하였다고 인식되었다. 『內經』에서 唐宋에 이르기까지 張仲景을 중심으로 주창된 ‘外風’에 대한 이론이 그것이다.<sup>14)</sup> 그러나 金元代 의가들은 中風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를 반성하고 중풍의 원인을 인체 내부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들을 ‘內風’설이라고 할 수 있다. 중풍에 대한 의가들간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아래와 같이 『동의보감』에 요약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왕안도(王安道)가, “중풍의 원인을 옛 사람들은 풍이라고 하였지만, 河間은 火라고 하고, 東垣은 氣라고 하였으며, 丹溪는 濕이라고 하여 도리어 풍을 허상으로 여겼으니 옛사람들과 매우 다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옛 사람들과 새 사람의 주장 중에 한쪽만 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풍으로 인한 것은 眞中風이고, 화기·습으로 인한 것은 類中風이지 중풍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sup>15)</sup>

이 설명은 許浚이 王履의 『醫經溯回集』 「中風辨」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풍에 대한 역대 의론을 요약한 것이다. 王安道는 역대 의가들의 견해차이를 眞中風과 類中風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唐宋까지의 外風說은 “眞中風”에, 金元代에 형성된 內風說은 “類中風”에 해당한다.

중풍 원인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병인에 따라 중풍의 치료 방법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外風說을 따를 경우 中風의 치법은 發汗法에 한정되게 된다. 이 때문에 外風說이 주류였던 唐宋까지 小續命湯 등 發汗시키는 處方이 치료의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金元時代 內風說이 주장되면서 發汗法 이외에 다른 치법들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치법의 다양성이라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후대 의가들에게는 혼란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였다. 王履의 주장 역시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자 나온 것이다.

중풍에 대한 논쟁과 혼란은 明代 이르러 종합적으로 정리되게 된다. 許浚은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虞搏의 『醫學正傳』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虞搏은 外風이나 內風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는 당연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虞搏은 明代에 후대 형성된 內風說이 外風說과 대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선언한

12) 삼대에……않았으며 : 예기(禮記). 곡례하(曲禮下). “醫不三世 不服其藥.”

13) 계강자가…않았으니 : 논어(論語). 향당(鄉黨).

14) 박중양, 김병탁. 中風治法中 發汗祛風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 7권 1호. p. 790.

15) 許浚. 東醫寶鑑(影印本). 南山堂. 1998. p. 359. 「雜病 風中風所因. “王安道曰, 昔人主乎風, 河間主乎火, 東垣主乎氣, 丹溪主乎濕, 反以風爲虛象, 而大異於昔人, 以予觀之, 昔人三子之論, 皆不可偏廢, 殊不知因于風者, 眞中風也. 因火, 因氣, 因于濕者, 類中風而非中風也.”

셈이며, 누구의 견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들 견해 모두를 변증의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왕안도는 세 사람과 옛 사람들이 풍을 다르게 논한 것을 眞中風과 類中風으로 나누어 보았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중풍은 먼저 안에서 상한 후에 밖에서 맞은 것이다. 단지 標本과 輕重이 다를 뿐이다. 온갖 병에는 다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다. 고인들이 논한 중풍은 그 증상을 말한 것이고, 세 선생이 논한 중풍은 그 원인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알면 중풍의 증후를 자세히 논할 수 있다. 『정전』<sup>16)</sup>

한편, 임상에서 중풍 치료에 다용되는 기준으로 中經脈, 中腑, 中臟의 구분이 있다. 이 구분법은 張仲景이 『金匱要略』에서 처음 주장한 것으로 연원이 오래 되었지만, 중풍을 증상과 치법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虞搏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임상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유의미하여 다용된다. 『동의보감』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풍이 혈맥에 맞으면 구안와사가 되고, 육부에 맞으면 사지와 관절을 쓰지 못하고, 오장에 맞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이 3가지는 치료법이 각각 다르다. 『동원』(중략) 증부이면 대부분 사지에 나타나고, 증장이면 대부분 구구(九竅)에 나타난다. 『역로』<sup>17)</sup>

중풍에는 증장과 증부가 있다. 증부일 때는 땀을 내야 하고, 증장일 때는 설사시켜야 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다. 표리가 불화하면 땀을 내거나 설사시켜야 하고, 표리가 조화된 뒤에는 그 경맥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역로』<sup>18)</sup>

16) 許浚. 앞의 책. p. 359. 「雜病 風」 中風所因. “王安道有論三子與昔人論風之不同, 而立眞中類中之目, 愚竊疑焉. 夫中風之證, 蓋因先傷於內而後感於外之候也. 但有標本輕重之不同耳. 假如百病皆有因有證, 古人論中風者, 言其證也. 三先生論中風者, 言其因也. 知乎此則中風之候, 可得而詳論矣. 『正傳』”

17) 許浚. 앞의 책. p. 360. 「雜病 風」 風有中血脈中腑中臟之異. “中血脈則口眼喎斜, 中腑則肢節廢, 中臟則性命危, 三者, 治各不同. 『東垣』(中略) 大抵中府者, 多着四肢, 中臟者, 多滯九竅. 『易老』”

18) 許浚. 앞의 책. p. 369. 「雜病 風」 風病治法. “風有中藏

위와 같이, 中經脈은 病邪가 몸의 바깥인 經脈에 직중된 것으로, 口眼喎斜를 주요 증상으로 하며 치료에는 發汗法을 사용한다. 中腑은 病邪가 六腑에 머물러 있는 경우로 半身不遂 등 四肢에 나타나는 증상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이 때에도 發汗法을 위주로 치료한다. 中臟은 病邪가 몸의 가장 깊은 부분인 五臟에 있는 경우로, 의식을 잃고 九竅가 막히는 것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下法을 위주로 치료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汗法을 사용한다고 해도 땀을 무리하게 많이 내서는 안된다는 점과 中臟의 경우에는 한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이다.

## 2. 산당 중풍의 진단과 치료 방향

그렇다면 산당 최충성의 중풍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했을까? 우선 그는 자신의 질병을 전통 사회에서 일반적인 질병 인식 방식, 즉 正氣가 虛한 상태에서 외부의 邪氣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19)</sup> 그가 자신의 중풍을 설명하기 위해 12살 때부터 발병할 때까지 “몸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굴”렀던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해 놓은 것은 이런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2세 이전 : 형을 따라 서울에 가서 공부함. “공부방은 씨늘하고 서재는 냉골이었으며 틈으로 새어 드는 바람과 냉기가 피부와 뺨속까지 스며”듦.
- 26세~30세 : 26세에 월출산, 27세에 용암산, 28세에 서울의 삼각산과 백악산 그리고 송도의 천마산과 성거산, 29세에 서석산(무등산), 30세에 지리산을 유람함. “책짐을 메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나그네 처지가 심히 열악하고 산 기운이 몹시 싸늘한데 안개에 젖고 바람을 범하다보니 한습(寒濕)이 몸에 쌓이게” 됨.
- 31세 : 봄에 지리산을 유람하다 스승 김굉필을 부음을 받고 영남까지 걸어감. 돌아오니 “발은

[臟], 中府之分. 中府[腑]者, 宜汗之, 中藏者, 宜下之. 汗亦不可過多也. 表裏不和, 則須汗下之, 表裏已和, 是宜治之在經也. 『易老』”

19) 黃帝. 黃帝內經. 반룡. 2000. p. 87. 「評熱病論篇」 “邪氣所湊, 其氣必虛.”



이미 부르토고 기력은 이미 소진”된 상황이었음. 몸이 회복이 되자 늦봄[鶯月]에 완산, 6월에는 옥천, 7월에는 설악산을 유람하고, 8월에는 창평에 감시(監試)를 보러 갔고 9월에는 김제의 과장(科場)에 다녀옴. 이 해 봄부터 가을까지 동분서주하느라 나귀 등에서 잠들고 길에서 밥을 해먹으며 잠시도 쉬지 않음. “이로 인해 기력은 더 떨어지고 몸은 아위어갔으며 안색은 검게 변했는데도 유람을 자제하고 쉬면서 기력을 보양할 줄을 몰랐”음.

· 32세 : 잠을 줄여가며 과거 공부를 함. 서늘한 곳에 거처하여 지기(志氣)가 상쾌해지면, 마음이 절로 깨어 있어서 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항상 스스로 찬 자리를 차지함. 이로 인해 “아침저녁으로 거처하며 바람을 마시고 한기에 노출되니 기가 또 고르지 못하게” 됨.

이상에서 살펴보자면 산당은 몸을 돌보지 않고 공부하고 유람한 탓에 虛勞에 처하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찬 기운’과 ‘습기’ 등의 外邪에 노출되었다고 스스로 나뉘는 병인을 분석해 냈다. 그는 한증법으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나는 일찍이 의서(醫書)를 보니, (중략) 무릇 증(蒸)은 땀을 내게 하는 것[汗]인데, 땀을 내어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갑자기 풍한(風寒) 상하여 냉기가 피부 사이에 들었으나 아직 깊은 곳까지 들지 않은 자에게 유효한 것이지, 나와 같이 병에 걸린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산당의 증풍은 몸이 쇠약해져 촉발된 것이다. 26세에서 30세까지는 이후로는 기력이 다 떨어지고 몸이 아물 정도로 전국을 유람하였고 이로 인해 안색이 검게 변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해 봄부터 가을까지 동분서주하느라 나귀 등에서 잠들고 길에서 밥을 해먹으며 잠시도 쉬지 못했다.”라는 말이 가장 단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그의 병은 李東垣이 주장한 元氣不足으로 인한 中風에 해당한다.

발병 정황을 보면, “사지에 마비가 오고 오관(五關)이 막혀서 정신이 나가 혼절하니 거의 인간세상과 이별한 듯이 5~6일을 지냈다.”라고 하였다. 이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耳目口鼻舌이 모두 막히게 된 것

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中臟의 증상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초기에 下法 위주의 치법을 운용하였어야 하며, 급성기가 지나 대소변이 소통되고 증상이 달라진 뒤에 다시 변증을 통해 새로운 치법을 적용시켰어야 한다. 물론 산당은 전술한 바와 같이 元氣가 虛損된 상태이지만 의식을 잃고 五官이 막힌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급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下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sup>20)</sup>

산당은 형님의 보살핌으로 소생하게 되었고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더듬더듬 할 수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앞을 볼 수 있었다. 거동 역시 조금씩 가능해 졌다. 산당의 형님이 어떤 방도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자가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아 치료 원칙에 적합한 치법을 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호전 상황을 “마치 수레마귀 자국에 고인 물에 살던 물고기가 팔팔 흐르는 서강(西江)을 만나서 처음에는 비실비실하다가 유연히 헤엄쳐 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비유하였다.

이 상황에서 그는 9일 동안 건강한 사람도 한식경을 넘기기 힘든 열기에 노출되는 행위를 하루 4~5차례 씩이나 반복하였다. 자연히 그나마 회복되어가던 기력마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中風 회복기에 있는 몸을 조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땀을 내 정기를 고갈시킨 셈이다.

정리하면, 산당은 中臟을 앓았기 때문에 下法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회복기에 조리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무리하게 汗法을 사용하여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 3. 산당의 증실과 증풍 치료의 관계

산당이 사용한 증실과 증풍 치료와의 관계는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산당의 증실은 汗法을 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東醫寶鑑』에는 “증풍을 치료할 때 밀폐된 방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다. 정상인

20) 許浚, 앞의 책, p. 369. 「雜病 風」 風病治法. “(전략) 치료할 때는 반드시 땀을 약간 내거나 약간 설사시켜야 하니 한법이나 하법을 적절히 써야 치료할 수 있다.”(治須少汗亦宜少下, 汗下得宜然後可治)

사람도 방을 밀폐하지 않으면 풍사에 맞으니 더구나 약을 먹고 땀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sup>21)</sup> 라고 하여 중풍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땀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中臟에는 汗法이 적당하지 않다는 사실과 汗法을 사용하더라도 땀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의학에서 汗法은 병사를 내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을 정도로 땀을 내는 것을 汗法의 목표로 삼으며, 과도하게 땀을 내면 도리어 亡陽과 같은 증상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중부일 때는 땀을 내야 하고, 중장일 때는 설사 시켜야 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다.”<sup>22)</sup>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산당은 증실에서 “땀이 비가 오듯이 턱 아래로 흘러 내리는데, 마치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처마로 내리치는 빗물과 같았다.”라고 하였는데, 증상에 맞지 않게 汗法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汗法을 사용한 잘못도 범한 셈이다.

둘째, 산당은 증실에 약재를 두어 중풍 치료를 도우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약재의 증기를 쏘여 중풍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고래로부터 있어 왔다. 중풍으로 의식이 없거나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唐나라의 王太后가 중풍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맥이 沈하며 입을 벌리지 못하였다. 許胤宗이, “약을 넘길 수 없으니 탕약의 김을 쏘이면 약이 주리로 들어가 하루가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기 방풍탕을 진하게 달인 물 몇 말을 침대 밑에 두고 안개 같은 김으로 쏘이니 저녁에 말할 수 있었다. 『연의』<sup>23)</sup>

산당의 증실에도 이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 菖蒲, 蒼耳, 桔梗, 생썩의 4가지 약재를 놓아두었다. 산당이 사용한 방법은 당시 사회에서 어느정도 공유되었던

기법으로 보인다. 생썩을 훈증하여 중풍을 치료하던 방법의 흔적을 조선 중기의 전통 지식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전통 의학 지식을 모아 놓은 『醫方合編』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중풍으로) 팔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에 생 썩을 많이 캐서 먼저 땅을 깊이 3자, 너비가 5자 되게 파서 뿔 나무로 불을 지른다. 불을 꺼낸 후, 그 속에 썩을 쪼갠다. 환자가 들어가 누워서 그 훈기를 쪼기기를 3일간 하면 風氣가 모두 없어진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구운 소금을 상복한다. 침구 치료 후에는 蒼耳水에 몸을 담근다.<이><sup>24)</sup>

『의방합편』에서는 이 방법을 ‘李’ 즉 조선 중기 활동했던 명의 李碩幹(1509-1574)의 경험방이라고 밝혀 놓았다. 그가 시기적으로 산당보다 후대 사람이기는 하지만, 산당의 방법과 이석간의 방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썩은 오래 묵은 것의 약효를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생썩을 사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중풍에 생썩으로 훈증하는 양자간의 유사성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이석간의 방법을 통해 산당이 사용한 방법의 원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창포, 장이, 길경은 開竅의 의미로 사용되는 약재들이다. 각각의 주요 효능은 아래와 같다.

창포는 성질이 따뜻하고[평(平)하다고도 한다.]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심(心)의 구멍을 열고 오장을 보하며, 구구(九竅)를 통하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한다.<sup>25)</sup>

길경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평(平)하다고도 한다.] 맛은 맵고 쓰며 독이 조금 있다. 폐기로 숨이 가쁜 것을 치료하고, 온갖 기를 내리며, 목구멍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sup>26)</sup>

21) 許浚. 앞의 책. p. 368. 「雜病 風」 風非大汗則不除. “治中風, 無密室不可療, 平人居室不密尙中風邪, 況服藥發汗之人乎.”

22) 許浚. 앞의 책. p. 369. 「雜病 風」 風病治法. “風有中藏, 中府之分. 中府者, 宜汗之, 中藏者, 宜下之. 汗亦不可過多也.”

23) 許浚. 앞의 책. p. 363. 「雜病 風」 熏法. “唐王太后中風, 不能言, 脈沈而口噤. 許胤宗曰, 既不能下藥, 宜以湯氣熏之. 藥入腠理, 周時可差. 濃煎黃芪防風湯數斛, 置于床下, 氣如烟霧熏之, 其夕便得語. 『衍義』”

24) 미상. (국역)醫方合部.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 291. 「風部 三意」 “四肢無力, 生艾多取, 掘地深三尺長五尺, 以樵火焚蒸之, 還出, 卽疊其中, 病人入臥, 蒸三日, 風氣盡去. 每夕寢時, 煮鹽常服, 針灸後, 蒼耳水浸身.<李>”

25) 許浚. 앞의 책. p. 720. 「湯液 菖蒲」 “菖蒲. 性溫[一云平], 味辛, 無毒. 主開心孔, 補五藏, 通九竅, 明耳目, 出音聲.”

26) 許浚. 앞의 책. p. 717. 「湯液 桔梗」 “桔梗. 性微溫[一云平], 味辛苦, 有小毒. 治肺氣喘促, 下一切氣, 療咽喉痛.”



창이는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조금 있다. 풍으로 머리가 차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증략) 온갖 풍을 치료한다.<sup>27)</sup>

이 약재들은 산당이 여전히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웠던 증상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4. 조선 전기의 증실 치료 문화

산당이 살았던 조선 전기에는 증실이 이미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폐단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왕실에서 공론화 될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다.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병든 사람으로 한증소(汗蒸所)에 와서 당초에 땀을 내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던 것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흔히 있게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널리 물어보아, 과연 이익이 없다면 폐지시킬 것이요, 만일 병에 이로움이 있다면, 잘 아는 의원을 보내어 매일 가서 보도록 하되, 환자가 오면 그의 병증세를 진단하여, 땀낼 병이면 땀을 내게 하고, 병이 심하고 기운이 약한 자는 그만 두게 하라.” 하였다.<sup>28)</sup>

예조에서 제하기를,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과 서울 안의 한증소(汗蒸所)에서 승인(僧人)이 병의 증상(證狀)은 묻지 않고 모두 땀을 내게 하여, 왕왕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니, 이제 한증소를 문밖(門外)에 한 곳과 서울 안에 한 곳을 두고,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差定)하여, 그 병의 증세를 진찰시켜 땀을 낼 만한 사람에게는 땀을 내게 하되, 그들이 상세히 살피지

않고 사람을 상해시킨 자는 의원과 승인(僧人)을 모두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좃고, 동·서 활인원과 서울 안의 한증소는 그전대로 두기로 명하였다.<sup>29)</sup>

이상의 두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 전기(세종) 증실이 질병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증실 관리를 승려가 맡아 운영되었다.<sup>30)</sup> 셋째, 汗蒸僧의 무지와 방조, ‘땀을 내야 할 병’인지를 구별할만한 의원의 부족, 汗蒸이 질병 치료에 맹목적으로 여겨지던 사회 통념으로 인해 한증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산당이 자신의 증풍을 증실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던 것은 ‘초동야부’의 조언뿐만은 아니었으며, 한증을 질병치료에 사용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일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료에서도 볼 수 있듯 그 역시 땀을 내야 할 병인지 그렇지 않은 병인지를 조언해줄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발한법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29)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18卷. 4年(1422) 10月 2日(丙戌). “禮曹啓,東西活人院及京中汗蒸所僧人不問病證, 並令汗之, 往往致人於死. 今置汗蒸所門外一處, 京中一處, 令典醫監, 惠民局, 濟生院醫員, 每一處二人差定, (診)[診]其病候, 可汗者汗之. 其不詳察, 以致傷人, 則醫員, 僧人並皆論罪.’ 從之, 仍命東西活人院及京中汗蒸所仍舊.”

30) 그 근거로 다음 기사를 들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57卷. 14年(1432) 8月 16日(壬寅).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중의 무리들이 도성(都城) 안팎에서 물건을 판매하며 횡행하면서 군역(軍役)을 면하려고 하니, 지금부터는 선종(禪宗)·교종(敎宗)과, 귀후소(歸厚所)에서 매골(埋骨)하는 중과, 서책(書冊)을 장정(粧幀)하고 주자소(鑄字所)에서 각자(刻字)하는 중과, 한증소(汗蒸所)와 별요(別寮)의 중 이외의 임무가 없는 중은 모두 논죄하고 군대에 충당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漢城府啓, 僧徒等於都城內外, 興販橫行, 窺免軍役. 自今除禪敎宗歸厚所埋骨, 書冊粧幀, 鑄字所刻字, 汗蒸別寮僧外, 無所任僧, 並論罪充軍. 從之) 三木榮, 金斗鍾 등은 이들을 “汗蒸僧”이라고 하였다. 三木榮, 앞의 책. p. 141. 金斗鍾, 앞의 책. p. 244.

27) 許浚, 앞의 책. p. 726. “湯液 藜耳” “藜耳. 性微寒, 味苦辛, 有小毒. 主風頭寒痛 (中略) 治一切風.”

28)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7卷. 4年(1422) 8月 25日(己酉). “傳旨于禮曹曰, ‘病人到汗蒸所, 始欲出汗離病, 因而死者往往有之. 廣問便否, 汗蒸果無益, 則罷之, 若利於病, 則擇善醫日往視之, 病人至則(診)[診]其病候, 可汗者汗之, 病甚氣弱者其安之.’”

## IV. 결 론

이상 「蒸室記」를 통해 山堂 崔忠成이 행한 한증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汗蒸은 조선 전기에 질병치료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蒸室記」는 조선 전기 증실의 내부 구조나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보기 드문 자료이다.
2. 자료를 통해 볼 때, 산당 최충성은 자신이 앓게 된 中風이 中臟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外邪를 외부로 다시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汗蒸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가 훗날 깨닫게 된 것처럼, 汗法은 中經脈과 中膈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산당은 汗法에서 무리하게 땀을 많이 내서는 안된다는 금기마저 여기게 되어 결국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3. 산당의 오치는 주위 사람의 말을 경솔히 믿은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런 폐단은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증실이 질병 치료에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려들이 운영하였고, 대다수 사람들이 의원의 진단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의학지식을 겸비한 의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는 등 당시 의료 체계의 허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 V. 참고문헌

### <논문>

1. 박중양, 김병탁. 中風治法中 發汗祛風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 7권 1호. p. 790.

### <단행본>

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思文閣出版. 1991. pp. 141~142.

2. 金斗鐘.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p. 244~247.
3. 崔忠成. 山堂集. 韓國文集叢刊 16. 민족문화추진회. pp. 593~594. 599. 611.
4. 許浚. 東醫寶鑑(影印本). 南山堂. 1998. p. 359. 360. 363. 368, 369. 717. 720. 726.
5. 黃帝. 黃帝內經. 반룡. 2000. p. 87.
6. 미상. (국역)醫方畧部.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 291.

### <온라인자료>

1.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7卷, 4年(1422) 8月 25日(己酉); 18卷, 4年(1422) 10月 2日(丙戌); 57卷, 14年(1432) 8月 16日(壬寅) [2011,06,03]. available from:URL:http://sillok.history.go.kr.
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011,06,03].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

표 1. 山堂 崔忠成 연표<sup>31)</sup>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세조	4	1458	무인	天順	2	1	羅州에서 태어나다.
세조	11	1465	을유	成化	1	8	형을 따라 漢陽을 여행하다.
성종	14	1483	계묘	成化	19	26	月出山을 유람하다.
성종	15	1484	갑진	成化	20	27	長湍의 湧巖山을 유람하다.
성종	16	1485	을사	成化	21	28	한양의 三角山·白巖山, 송도의 天磨山·聖居山을 유람하다.
성종	17	1486	병오	成化	22	29	瑞石山을 유람하다.
성종	18	1487	정미	成化	23	30	頭流山을 유람하다. 도중에 金鍵과 함께 南孝溫을 방문하여 「小學」·「近思錄」을 講論하다. ○ 점필재 金宗直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글을 올려 佛巫의 폐단을 물리칠 것을 청하다.
성종	19	1488	무신	弘治	1	31	봄, 方丈山을 유람하다. ○ 金宏弼의 부친상을 조문하러 嶺南에 가다. ○ 여름, 完山·玉川 등지를 유람하다. ○ 가을, 雪山을 유람하다. ○ 8월, 昌平監試에 응시하다. ○ 9월, 金堤文場에 응시하다. ○ 겨울, 金鍵 등과 더불어 月出山 精廬에서 講學하다.
성종	20	1489	기유	弘治	2	32	겨울, 鳳城에서 中風으로 병석에 눕다. <蒸室記>, <警慮焚刻記>를 짓다.
성종	21	1490	경술	弘治	3	33	전라도 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약을 구하다.
성종	22	1491	신해	弘治	4	34	3월 24일, 졸하다. 羅州 可芝洞 선산에 묻히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	2월, 士林이 祖 崔烟村이 享祀되어 있는 存養祠에 배향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후손 崔秀華가 소장하고 있던 유고를 朴世采에게 校勘을 받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	存養祠에 제관을 보내 致祭하고 '鹿洞書院'으로 賜額하다.
순조	5	1805	을축	嘉慶	10	-	9대손 崔嫻이 2권 1책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순조	28	1828	무자	道光	8	-	후손 崔鍾翼이 家狀을 짓다.
고종	1	1864	갑자	同治	3	-	宋來熙가 行狀을 짓다.
고종	3	1866	병인	同治	5	-	후손 崔秉潤 등이 문집을 增補하여 간행하다.

3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011.06.03].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